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조 공 호[†]

서강대학교

문화성향에 따라 통제 양식의 선호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고등학생(연구 1)과 대학생(연구 2)을 대상으로 한 문화 내적 비교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중심성향자는 자기 자신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2차 통제 양식을 환경 세계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1차 통제의 양식보다 선호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는 2차 통제의 양식보다 1차 통제의 양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연구 1과 연구 2). 문화성향에 따른 이러한 통제 양식 선호의 차이는 집단중심성향자는 타인이나 상황 조건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만, 개인중심성향자는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연구 2).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통제력 지각의 차이와 각각의 적응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문화성향, 통제 양식(1차 통제·2차 통제), 주의의 초점, 통제력 지각, 문화 내적 연구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願望)이나 목표의 추구 및 내적 감정의 표현은 집단 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집단 목표를 개인 목표보다 상위에 두고, 개인적 원망이나 욕구를 억제할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 양보·협동·겸양 및 자아중심적 정서 표현의 억제를 강조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욕구의 추구 및 내적 감정의 표현은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우선시키고,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강조하며, 그 결과 적극성·경쟁·자기고양·솔직한 정서 표현을 중시하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a, 1995; 조공호, 1993, 1996, 1997,

1999, 2000, 2003).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로부터 통제(control)의 의미와 그 대상에 대한 문화간 차이가 유발된다(Heine & Lehman, 1995;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Kagitcibaci, 1997;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Markus & Kitayama, 1991; Matsumoto, 2000; Triandis, 1990, 1994a, 1995; 조공호, 1997, 2000, 2003).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의 민감성, 상황의 필요와 요구에의 적응 및 자기 조절의 노력을 통해 개인적

* 연구 1의 자료를 수집해 준 이숙희 선생과 전체 자료를 통계 처리해 준 박동필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는 참으로 타당하고도 귀중한 지적을 해 주셨으나, 연구의 시작 단계가 아니라 연구가 끝난 다음에 지적을 받았다는 점과 필자의 역량의 부족 및 시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수정 단계에서 이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를 위한 밑받침으로 삼겠다. 크게 고마워하고 있다.

[†] 교신저자 : 조공호(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ghcho@ccs.sogang.ac.kr)

역량이 체험되므로, 통제란 결국 상호의존성과 연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적 욕구와 목표 및 사적 감정 등 내적 속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내적 욕구·권리 및 능력의 표출과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의 노력을 통해 개인적 역량이 체험되므로, 통제란 결국 개별성과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회 상황이나 외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통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곧바로 통제의 주요 대상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이나 외적 상황 및 조건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감정 및 내적 속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아, 자기 자신을 외적 상황 조건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욕구·감정 및 내적 속성보다는 외적 상황조건이나 타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아, 외적 환경 세계를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김수인, 1996; 조궁호, 2003; 최상진, 1995).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문화성향의 개인차 연구의 방법을 원용한 두 개의 관련된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려 하였다.

통제의 두 양상: 1차 통제와 2차 통제

Rothbaum, Weisz와 Snyder(1982)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시된 통제에 관한 이론들(예: Bandura, 1977, 1997; Seligman, 1975; White, 1959 등)은 모두 통제를 “환경 세계를 개인의 욕구에 합치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p. 8)이라 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에서는 “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p. 8)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능동성·도전 및 저항과 극복 등 향외적 행동(向外的 行動, outward behaviors)을 중시하고, 수동성·후퇴 및 순종 등 향내적 행동(向內的 行動, inward behavior)을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나오는 병리적 행동이라 간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Rothbaum 등(1982)은 이러한 향내적 행동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자기의 제한된 능력과 운 같은 외적 제약의 작용가능성을 인정하고, 동료나 집단에의 의존과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무모한 개인적인 도전으로부터 오는 실패와 그로 인한 실망감과 무기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 적응 유형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향내적 행동들은 “자기를 외부 세계에 합치되도록 만들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노력”(Rothbaum et al., 1982, p. 8)에서 나오는 것이라 보아, 이를 전자의 1차 통제(primary control)와 대비하여 2차 통제(secondary control)라 불렀다. 즉, 1차 통제는 환경 세계에 대한 통제로서, 타인·대상 및 환경 조건 등 외부의 현실을 자기에게 합치하도록 영향을 끼침으로써 보상을 얻으려 하지만, 2차 통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로서, 자기의 기대·목표·원망 등 내적 속성을 외부 현실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 p. 956, 표 1 참조).

Weisz 등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들은 1차 통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통제를 추구하기도 한다. 즉,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 대신 타인·대상 또는 환경 세계의 여러 조건들과의 연합 또는 합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 현실에 적응하려는 2차 통제를 추구하기도 한다”(p. 956)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Rothbaum 등(1982)은 “1차 통제와 2차 통제의 정합이 최적의 적응”(p. 8)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1차 통제와 2차 통제 중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 통제 양식으로 선호되는가 하는 점에 문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Weisz 등(1984)은 일본인들은 미국인보다 외통제 유형¹⁾이 많고, 타인 및 집단과의 연합을 선호하며, 아동 양육과 사회화 양식·종교와 철학·직업 및 심리치료의 장면에서도 2차 통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와는 달리 2차 통제가 선호되고, 실제로 이러한 통제 유형의 사람이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집단

1) Rotter(1966, 1975)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처벌, 또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제반 사건이나 결과들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운·환경·타인 등 외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내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 유형과 외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1-E Scale)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내통제형은 1차 통제가 특징적인 통제 유형인 사람이고, 외통제형은 2차 통제가 특징적인 통제 유형인 사람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주의 사회에서 2차 통제가 지배적인 통제 양식임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으며 (Chang, Chua, & Toh, 1997), 최상진(1995)은 이러한 2차 통제가 한국인의 특징적인 통제 양식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중국인에게는 외통제형이 내통제형보다 많으며, 외적 통제의 신념이 내적 통제의 신념보다 강하다는 결과들(Bond & Hwang, 1986; Cheung, 1986; Liu, 1986; Yang, 1986)도 2차 통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적인 통제 양식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의의 초점과 귀인 및 통제력의 원천

지각의 장에서 특출성(salience)이 높은 자극은 지각자의 주의를 끌고, 지각자는 이렇게 자기의 주의를 끄는 자극을 상황 변화 또는 행동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Taylor & Fiske, 1975, 1978).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의의 초점이 되는 자극에 원인을 귀속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각적으로 주의의 초점이 되는 자극에의 귀인은 인간의 지각 경험에서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추론 과정인 것이다(Jones & Nisbett, 1972; McArthur & Baron, 1983; Nisbett, 2003; Zebrowitz, 1990; Taylor, Peplau, & Sears, 2003).

지금까지 동일한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귀인의 문화 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인도 등 집단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상황 귀인의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캐나다 등 개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성향 귀인의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회적 사건의 원인을 주로 행위자 밖의 상황 조건에서 찾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행위 당사자의 성격·감정·욕구 등 그의 내적 성향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Choi, Dalal, Kim-Prieto, & Park, 2003; Choi & Nisbett, 1998; 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Miller, 1984, 1986; Morris, Nisbett, & Peng, 1995; Morris & Peng, 1994; Nisbett, 2003;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Triandis, 1994a, 1995).

주의와 귀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위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화유형에 따른 귀인 양상의 차이

는 두 문화권에서 주의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자 자신의 내적 속성보다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조건이 더 특출한 자극으로 부각되고, 따라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위자의 내적 성향보다는 상황 조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써, 상황 조건에 원인을 귀속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조건보다는 그의 내적 속성이 더 특출한 자극으로 부각되고, 따라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상황 조건보다는 행위자의 내적 성향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써, 내적 성향에 원인을 귀속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문화권에서 이렇게 주의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은 두 문화권에서 세상사를 파악하는 인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계는 항상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 조건들 및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요인과의 총체적 관계에 중심을 두고 인간을 파악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자 자신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여기에서 행위의 원동력을 찾는 상황중심적인 사회이론(situation-centered social theories)을 보유하게 되어,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 밖의 상황 조건에서 찾는 상황주의 편향(situationalist bias)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Fiske et al., 1998; Kagitcibasi, 1997; Nisbett, 2003; Nisbett et al., 2001).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계는 안정된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로 구별되는 대상으로 구성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대상들의 안정적 속성의 분석을 통해 세상사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대상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 속성의 분석에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행위자 자신에게서 그 변화의 원동력을 찾는 사람중심적인 사회이론(person-centered social theories)을 갖추게 되어,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 자신의 내적 속성에서 찾는 성향주의 편향(dispositionalist bias)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Fiske et al., 1998; Kagitcibasi, 1997; Nisbett, 2003; Nisbett et al., 2001).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주의의 초점과 그에 따른 인

과 추론의 차이는 곧바로 두 문화유형에서의 지배적인 통제 양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세상사의 원인을 상황 조건에서 찾으므로 통제력의 원천을 상황 조건에 두게 되고, 따라서 상황 조건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세상사의 원인을 안정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자 자신에게서 찾으므로 통제력의 원천을 행위 당사자에게 두게 되고, 따라서 행위자보다는 상황 조건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주의의 초점의 차이는 곧바로 두 문화 집단에서의 전술한 바와 같은 통제 양식의 차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차 연구의 방법으로서의 개인차 연구

문화차를 연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같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반응을 비교하는 문화 집단간 비교 연구의 방법이다. 이는 대체로 같은 심리적 내용을 측정한다고 여겨지는 동일한 척도에 대한 반응의 인종 집단간 또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화비교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집단간 비교 연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Fiske et al., 1998; Greenfield, 1997; Heine, Lehman, Peng, & Greenholtz, 2002; Markus & Kitayama, 1991; Peng, Nisbett, & Wong, 1997; 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 Triandis, 1994b;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 & Zaleski, 1993).

이러한 문화 집단간 비교 연구의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크게 서구의 과학적 자민족 중심주의(scientific ethnocentrism)의 문제와 문화간 동등성(cultural equivalence) 확보의 곤란성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Yang, 2000). 여기서 전자는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므로써 연구 주제와 개념의 선택 및 이론 구성, 그리고 측정 도구의 제작 등의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서구의 자민족 중심주의가 개재할 수 밖에 없다(Berry et al., 1992; Danziger, 1997)는 문제점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므로써, 이에 대한 친숙도나 선호도 또는 일반적인 반응 경향의 문화차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Chen, Lee, & Stevenson, 1995; Greenfield, 1997; Heine, Takata, & Lehman, 2000; Markus & Kitayama, 1991), 반응 결정 시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서로 다른 참조 대상 집단(reference group)을 비교 대상으로 잡는 경향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Heine et al., 2002; Peng et al., 1997), 측정 도구나 개념의 번역과 균질화의 곤란성의 문제(Brislin, 1986; Markus & Kitayama, 1991),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집단에서 발견된 차이가 각 문화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의 문제(Markus & Kitayama, 1991; Van de Vijver & Leung, 1997) 등을 포괄하는 문제점이다.

문화차 연구 방법의 또 다른 축은 한 문화 집단내의 여러 하위 집단간의 비교 연구이다. 이러한 단일 문화 내의 하위 집단간의 비교 연구들은 세 가지 유형의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 문화 내의 지역이나 세대 등 서로 다른 하위문화 집단의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미국 남부인과 북부인의 명예(honor) 관련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Nisbett & Cohen, 1996), 대도시와 농어촌 거주민(예: Kagitcibasi, 1996; Triandis, 1995; 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 등), 고연령 집단과 저연령 집단(예: Gudykunst, 1993; 김의철, 1997; 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등), 교육 수준(예: Triandis, 1995; 한규석·신수진, 1997 등)에 따른 집단주의/개인주의적 행동 양식을 비교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지시를 통해 실험실 내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적 가치나 성향을 촉발시킨 후,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원용한 실험 연구의 방법이다. 짧은 이야기를 담은 지시문을 통해 개인적 목표/집단 목표(personal goal/ group goal)의 중요성을 점화시킨 후 협동 및 경쟁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Mitchell & Silver, 1990), 개인적 자기/집단적 자기(private self/collective self)를 점화시킨 후 자기진술 척도(Kuhn & McPartland, 1954)에의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Trafimow, Triandis, & Goto, 1991), 총

체적 사고(holistic thought) 양식을 점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 어떤 사회적 사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한 후 이 중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인을 제거하도록 요구한 연구(Choi, Dalal, Kim-Prieto, & Park, 2001, 연구 4) 및 홍콩인과 같은 이중문화 경험 집단(bicultural persons)에게 미국 상징물(예: 성조기·미국 의사당·링컨 초상화)이나 중국 상징물(예: 용 그림·천안문 광장·노자의 초상화)을 제시하여 각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점화시킨 후 가치 선호(Hong, Chiu, & Kung, 1997, 연구 1)와 귀인 양상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Hong et al., 1997, 연구 2; 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를 실험실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였다”(Trafimow et al., 1991, p. 654)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이렇게 점화의 방법에 의해 문화성향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문화성향 또는 조망 집단을 선정한 후,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비교하는 개인차 원용 연구의 방법이다. 유태인 대학생(Kurman, 2001, 연구 2)과 미국 대학생들(Sedikides, et al., 2003, 연구 2)에게서 독립적 자기관상호의존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의 보유자들을 선정한 후 이 두 집단의 자기 고양(self-enhancement)의 경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 미국 대학생들에게서 자기일관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Suh, 2002, 연구 1) 등이 이에 속한다.²⁾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인차 원용 문화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수원과 장성수(이수원·이현남, 1993; 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 장성수·이현남, 1989)는 공정과 인정의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선호하는 사람과 인정을 선호하는 사람을 나누었을 때, 전자는 후자보다 타인의 호의에 대해 물질적 보상

을 하려 하거나 자기가 타인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도 물질적 보상을 받으려 하며, 공동 성과를 분배할 때에도 전자는 형평분배를 선호하고, 후자는 균등분배를 선호함을 밝혀내었다. 이와는 달리, 한규석과 오점조(1993)는 아동들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어 그들의 교류 양상을 비교하고 있으며, 고재홍(2001)은 대학생과 회사원들을 이 두 문화성향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공동 작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 양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와 그 공동연구자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회사원들을 이 두 문화성향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겸양 귀인 경향이 강하고(조금호·김소연, 1998), 동조 행동을 더 많이 하며(조금호·김은진, 2001),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의 허구적 합의성(false consensus) 지각 경향은 높고(조금호, 2001; 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명정완, 2001), 자신의 능력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false uniqueness) 지각 경향은 낮음(조금호, 2002; 조금호·명정완, 2001)이 밝혀졌다. 또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수준은 높고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수준은 낮으며(조금호·김지용·홍미화·김지현, 2002; 조금호·명정완, 2001), 타인에의 공감(empathy) 수준은 높고, 고독(loneliness)수준은 낮음(조금호 등, 2002)이 밝혀졌다. 그리고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친구들이 나와 유사하기보다는 내가 친구들과 더 유사하다고 판단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반대로 내가 친구들과 유사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나와 더 유사하다고 판단한다(조금호, 2001)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지는 상호의존적 자기관 보유자·인정 조망자·집단중심성향자와 독립적 자기관 보유자·공정 조망자·개인중심성향자 간의 제반 차이는 모두 집단주의 문화 집단과 개인주의 문화 집단의 차이와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차를 원용하여 문화차를 밝히려는 연구들은 그 자체 타당한 문화 비교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특히 이러한 단일 문화내의 문화 연구의 방법은 서로 다른 문화 집단간의 비교 연구가 가지는 문화 특수적 구성 개념과 반응 편파 및 참조 집단 선정의 동질성 확보라는

2) 이들은 유태인과 싱가포르인(Kurman, 2001, 연구 1), 미국인과 일본인(Sedikides, et al., 2003, 연구 1) 및 미국인과 한국인(Suh, 2002, 연구 2)의 같은 반응을 비교하는 연구를 병행하여, 이와 같은 단일 문화 내의 개인차 원용 연구의 문화차 연구로서의 가치를 실증해 보이고 있다.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독특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 연구의 방법인 것이다(Sedikides et al., 2003).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한국인을 집단 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었을 때, 1차 통제 수준은 후자가 전자보다 높지만, 2차 통제 수준은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보려 하였다(연구 1). 이어서 이러한 통제 양식 선호의 차이는 이 두 집단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보려 하였다(연구 2). 즉, 연구 2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는 자기보다 중요한 타인이나 상황에 더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통제력의 원천을 상황에 두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보게 되지만(2차 통제), 개인중심성향자는 타인이나 상황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통제력의 원천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을 타인·상황이라 보게 된다(1차 통제)는 사실을 밝혀보려 하였다.

연구 1

김수인(1996)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어 이들의 지배적인 통제 양식을 분석해 본 결과, 1차 통제 양식의 선호도는 후자가 전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2차 통제 양식의 선호도는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 추론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 타당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얻어져야 할 것이다.

대체로 대학생들은 어느 문화 집단에서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소속 욕구와 동조성이 높아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나은영·민경환 1998; Brown, Clasen, & Eicher, 1986; Newman & Newman, 1976). 필자의 선행 연구(조금호·김은진, 2001)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개인중심성향은 낮고, 집단중심성향은 더 높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연

구 1에서는 김수인(1996)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집단중심성향이 강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의 위에서의 같은 상호작용의 효과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방법

연구참가자

서울 지역에 소재한 6개 고등학교 2학년생 600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총 600명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중복 응답을 하였을 경우 등 부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36명을 제외한 564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남학생은 240명(42.5%), 여학생은 324명(57.4%)이었다.³⁾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와 2쪽의 통제 양식 척도가 사용되었다. 성별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평소 생활 태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다음, 개인의 응답은 전체적인 통계 처리 자료로만 사용될 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는 10줄 짜리 글)을 제일 첫 장에 넣어 소책자를 구성하였다.⁴⁾

문화성향 척도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제작하고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INDCOL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

3) 이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 변인과 다른 변인의 상호작용도 없었다. 따라서 모든 분석은 남·녀 학생의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 2도 마찬가지였다.

4) 연구 1의 자료는 이숙희(2003)가 필자의 지도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삽입하여 수집하였다. 그녀의 원 소책자에는 이 이외에 대인신뢰 척도, 불안 척도, 매물비용 효과 측정 설문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화성향 척도와 통제 양식 척도는 소책자의 첫번째와 두번째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자(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자(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이 네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Likert형 9점 척도(1 : 전적으로 반대; 5 : 중간; 9 : 전적으로 찬성)의 태도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Singelis 등(1995)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 “우리 의식 설문지”와의 상관분석과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유형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존 및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기범, 1996; Kim & Kim, 1997).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 = .71, HI = .81, VC = .68, HC =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본 연구의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신뢰도는 VI = .72, HI = .76, VC = .66, HC = .76이었으며, 척도 전체는 .81이었다.

통제 양식 척도 연구참가자들의 1차2차 통제 양식의 선호도는 김수인(1996)이 “지각된 통제의 두 과정 모형”(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 Rothbaum et al., 1982)을 근거로 하여 제작한 1차2차 통제 양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차 통제와 2차 통제를 다른 차원으로 보고, 각각 12문항씩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중 1차 통제를 측정하는 12문항의 내용은 외부 사상(事象)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강한 것으로, 자기주장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예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진상을 밝혀서 끝까지 내 권리를 찾는다). 2차 통제를 측정하는 12문항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향내적 행동을 지향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예 :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기대 수준을 바꾼다). 이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중간;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김수인(1996)은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양식을 도전적인 향외적 행동과 개인 내부로 지향하는 향내적 행동으로 구분해서 측정하는 “향내외적 행동 척도”(Inward-Outward Behavior Scale : Peterson, 1961)와 상관을 내어본 결과, 2차 통제와 향내적 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p < .05$)을 확인하였다.⁵⁾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1차 통제와 2차 통제가 각각 .79와 .56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참가자에게서 얻은 신뢰도는 1차와 2차 통제 각각 .76과 .56으로,⁶⁾ 원 척도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절 차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임교사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린 다음, 각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과 및 해석

문화성향 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 전체 개인중심성향(VI + HI)과 전체 집단중심성향(VI + HC)의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향 분포와 집단중심성향 분포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 “개인중심성향 고-집단중심성향 저”인 114명(20.2%)을 개인중심성향 집단으로, “개인중심성향 저-집단중심성향 고”인 98명(17.4%)을 집단중심성향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564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이들 212명의 자료를 주축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5) 그녀의 논문에서 이 상관의 실제 크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6) 이 연구에서는 인쇄 과정에서의 실수로 김수인(1996)의 원 척도에서 2차 통제에 해당하는 22번 문항(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면, 휴식의 기회로 여기고 편히 쉰다)을 빠뜨리고 인쇄를 하였다. 따라서 연구 1에서 2차 통제 양식은 11문항만으로 측정되었다.

문화성향과 1차·2차 통제 수준

상관 분석 전체 연구참가자(564명)의 개인중심성향·집단중심성향·1차 통제 수준·2차 통제 수준의 점수를 기초로 이들 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1차 통제 수준은 집단중심성향($r = .24, p < .001$)보다는 개인중심성향($r = .48, p < .001$)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t(561) = 5.02, p < .001$, 2차 통제 수준은 개인중심성향($r = .08, p > .05$)보다는 집단중심성향($r = .22, p < .001$)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t(561) = 2.38, p < .01$. 이는 연구참가자들의 집단중심성향이 높을수록 1차 통제보다 2차 통제를 많이 하며,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2차 통제보다 1차 통제를 더 많이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 집단의 1차·2차 통제 수준의 평균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두 문화성향집단 1차·2차 통제 수준(괄호안은 표준편차)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향자
1차 통제	4.15(.68)	4.51(.77)
2차 통제	4.47(.60)	4.27(.70)

이를 문화성향(집단중심성향자·개인중심성향자) × 통제 양식(1차 통제·2차 통제)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설계의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문화성향의 주효과와, $F(1, 210) = 1.73, p > .05$, 통제 양식의 주효과가, $F(1, 210) < 1$,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었다, $F(1, 210) = 20.77, p < .001$.

7)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전체 개인중심성향(VI + HI)과 전체 집단중심성향(VC + HC) 간에 상관이 거의 없어서 상호 독립적인 문화성향의 추정치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예: 조근호, 2002의 연구 1에서 두 성향의 상관은 $r(538) = .04, p > .05$; 조근호·김소연, 1998의 연구 2에서의 두 성향의 상관 $r(80) = .17, p > .05$; 조근호·김은진, 2001의 연구 1에서의 두 성향의 상관 $r(537) = .06, p > .05$ 등)과 이 연구 1에서의 두 성향의 상관도 $r(561) = .06, p > .15$ 으로서 매우 낮다는 사실과, 이 두 성향은 한 개인 내에 공존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차원의 문화 지표라는 입장(예: Triandis, 1994a, b, 1995)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문화성향의 지표로 보고,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 2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서 보듯이 1차 통제의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4.51)가 집단중심성향자(4.15)보다 높지만, $t(211) = -3.54, p < .001$, 2차 통제의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4.47)가 개인중심성향자(4.27)보다 높음을, $t(211) = 2.28, p < .05$,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1차 통제 (4.15)보다는 2차 통제(4.47)를 더 많이 하지만, $t(97) = -3.37, p < .001$, 개인중심성향자들은 2차 통제(4.27)보다는 1차 통제(4.51)를 더 많이 함을, $t(113) = 2.73, p < .01$,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연구 2

연구 1의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성향에 따라 1차와 2차의 통제 양식을 선호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김수인(1996)의 선행 연구(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반복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선호 경향의 상호작용 현상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에서 문화성향에 따른 통제 양식 선호 양상의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성향 집단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신보다 중요한 타인이나 상황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따라서 타인이나 상황의 통제력을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상황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의 대상(2차 통제)으로 보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타인이나 상황보다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자신의 통제력을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의 대상(1차 통제)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 2에서는 두 문화성향 집단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가 그들의 통제 양식 선호 경향의 차이를 조절(moderate)할 것이라는 이러한 추론을 확인해 보려 하였다.

방법

연구참가자

서강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138명이 정규 수업 시간 중에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남학생은 73명(52.

9%), 여학생은 65명(47.1%)이었다.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 2쪽의 통제 양식 척도, 그리고 2쪽의 사회 의식 척도가 사용되었다. 소책자의 제작은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연구 1과 같았다.⁸⁾

통제 양식 척도 연구 1과 같았다.⁹⁾ 다만 본 연구에서 1차와 2차 통제 양식별로 문항 분석을 해 본 결과, 1차 통제 양식 문항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2차 통제 양식 문항 중에서는 각 문항-전체 2차 통제 양식 수준 간에 상관이 아주 낮아, 이를 제거하고 Cronbach α 를 구했을 때 눈에 띄게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이 2개(4번·16번 문항) 있어, 이를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1차 통제 양식 수준은 12문항, 2차 통제 양식 수준은 10문항으로 측정된 셈이다. 이 두 통제 양식의 Cronbach α 는 각각 .75와 .63이었다.

사회 의식 척도 연구참가자들의 주의 초점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ldon(1996)이 제작한 사회 의식 척도(Social Awareness Inventory)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들의 주의의 초점을 대상(자기·타인) × 내용(경험·외모) × 관점(자기·타인)의 8가지 하위척도 상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기 경험/자기 관점”(Self Experience/Self Perspective : SES) 척도는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이고(예 :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평가해 보는 버릇이 있다, 어떻게 내가 현재의 나와 같이 되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긴장되거나 당혹하게 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자기 경험/타인 관점”(Self Experience/Other Perspective : SEO) 척도는 자기의 경험을 타인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이다(예 :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 의견이 타당

한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는 내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Sheldon(1996)은 이러한 8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각각 8개씩 만들어 모두 64개 문항을 구성하고, 306명의 대학생에게 “각 문항이 얼마나 자기를 잘 나타내는지”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3 : 중간, 5 : 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게 하고, Cronbach α 를 계산해 본 결과, .68 ~ .83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p. 624, 표 2). 이어서 그는 이 척도의 타당도를 Fenigstein, Scheier 및 Buss(1975)의 “공적-사적 자의식 척도”(Public-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등 다양한 기존 척도와의 상관으로 구해본 결과, 바람직한 수준의 이론 및 공존타당도를 가짐을 보고하고 있다(Sheldon, 1996, p. 625, 표 4; p. 627, 표 5; p. 630, 표 6).

그는 이 8개의 하위 척도를 303명(연구 1), 261명(연구 2), 167명(연구 3)의 대학생의 응답을 기초로 요인분석하여, 이들이 일관되게 “자기 기초 요인”(self-grounded factor)과 “자기 분리 요인”(self-divided factor)으로 나뉘어짐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전자는 주의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는 경향의 요인으로, 그 핵심은 “자기 경험/자기 관점”(SES) 하위척도이고, 후자는 주의의 초점을 타인의 의견·감정·관점에 두는 요인으로, 그 핵심은 “자기 경험/타인 관점”(SEO) 하위척도이다(Sheldon, 1996, p. 624, 표 3).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Sheldon(1996)의 “사회 의식 척도” 중 SES와 SEO의 두 하위척도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16개 문항(각각 8개씩)을 뒤섞어 제시하고, 이들 각각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부합하는지”를 9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중간, 9 : 매우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의 응답을 두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해 본 결과, 모든 문항이 Sheldon(1996)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게 분류되었으며, 각 척도의 Cronbach α 는 SES = .85, SEO = .71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 척도에서 SES와 SEO 간에는 상관이 아주 낮아, 거의 상호 독립적인 차원임이 밝혀지고 있다, $r = .12, p > .15$.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타당도를 “타인 고려

8) 본 연구의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각 하위 척도의 Cronbach α 는 VI = .76, HI = .76, VC = .64, HC = .73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비슷하였다.

9) 연구 2에서는 다른 두 척도가 모두 9점 척도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이 척도에 대해서도 9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중간, 9 : 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other concern : OC)의 정도”와의 상관을 통해 검증해 보기 위하여, 사회 의식 척도 문항 16개 밑에 “일반적으로 나는 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보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이나 감정에 대해 신경을 더 쓰는 편이다”와 “일반적으로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자신보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더 고려하는 편이다”의 두 문항을 첨가하여,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똑같은 9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 두 문항의 평균치를 응답자 각각의 “타인 고려 경향”의 지표로 삼아 SES 및 SEO 요인 점수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각각 $-.02(p>.05)$ 와 $.46(p<.001)$ 을 얻었다. 이는 SES 및 SEO 척도가 논리적으로 높은 예언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절 차

실험은 대략 70명씩으로 이루어진 두 수업 단위에서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진행되었다. 담당교수가 강의실에 입장하여, 학생들에게 자료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소책자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5분 내외였다.

결과 및 해석

문화성향 집단 선별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각 응답자별 두 문화성향 점수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를 각각 26명(18.8%)과 30명(21.7%) 선별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상관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138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이들 56명의 자료를 기초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화성향과 1차·2차 통제 양식 수준

상관분석 전체 연구참가자(138명)의 개인중심성향·집단중심성향·1차 통제 수준·2차 통제 수준 사이의 상관을 계산한 결과, 1차 통제 수준은 개인중심성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r = .27, p < .001$, 집단중심성향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r = .13, p > .05$. 이에 비해, 2차 통제 수준은 집단중심성향과는 유의미

한 상관이 있었으나, $r = .18, p < .05$, 개인중심성향과는 상관이 거의 없었다, $r = -.05, p > .05$.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집단의 1차·2차 통제 수준의 평균치는 표 2와 같다.

표 2. 두 문화성향 집단 1·2차 통제 수준(괄호안은 표준편차)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향자
1차 통제	4.97(.83)	5.39(.89)
2차 통제	6.09(.74)	5.85(.92)

이를 문화성향×통제 양식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설계의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문화성향의 주효과는 없었다, $F < 1$. 그러나 통제 양식의 주효과는 매우 유의미하였다, $F(1, 54) = 25.60, p < .001$. 이는 이 연구의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1차 통제(5.20)보다는 2차 통제(5.96)를 더 많이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는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F(1, 54) = 4.46, p < .05$. 이는 1차 통제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지만, $t(54) = 1.79, p < .05$, 2차 통제 수준은 두 문화성향자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t(54) = 1.07, p > .05$. 여기서 2차 통제 수준에서 두 문화성향자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¹⁰⁾ 이러한 결과는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와는 달리 개인중심성향자도 매우 높은 수준의 2차 통제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통제 양식의 주효과가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이 연구의 기본 가설을 배척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앞의 상관분석에서 2차 통제 수준은 개인중심성향($r = -.05$)과는 상관이 없음에 비해, 집단중심성향($r = .18$)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자의

10) 김수인(1996)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1차 통제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2차 통제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일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차 통제 수준(6.09)이 개인중심성향자(5.85)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해준다.

문화성향과 주의의 초점

상관분석 전체 응답자들의 자기 주의 경향(SES) · 타인 주의 경향(SEO) · 타인 고려 경향(OC)과 두 문화성향 및 통제 양식 사이의 상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주의의 초점과 문화성향 · 통제양식의 상관 (r)

	SES	SEO	OC
개인중심성향	.24**	-.06	-.04
집단중심성향	.23**	.22**	.30***
1차 통제수준	.19*	-.14	-.28***
2차 통제수준	.20*	.33***	.13

* $p < .05$, ** $p < .01$, *** $p < .001$

이 표에서 보면, 자기 주의 경향(SES)은 개인중심성향 및 집단중심성향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따라서 1차 및 2차 통제 수준과도 비슷한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이 자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는 그들의 문화성향이나 통제 양식 선호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SES 척도가 응답자들이 자기 주의를 초점으로 삼는 경향을 제대로 변별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SEO)은 개인중심성향과는 별 상관이 없으나, 집단중심성향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관의 경향은 1차 · 2차의 통제 수준과의 상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타인 고려 경향(OC)과의 상관에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 측정 도구의 설명에도 제시되었듯이, 타인 고려 경향은 SEO와 매우 높은 상관($r = .46, p < .001$)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SEO 척도의 개념적 타당성을 거듭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 집단의 SES와 SEO 및 OC 점수의 평균치는 표 4와 같다.

표 4. 두 문화성향집단 SES · SEO · OC 평균치(괄호안은 표준 편차)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향자
SES	6.88(1.21)	6.78(.92)
SEO	6.07(1.03)	5.46(1.19)
OC	5.71(1.51)	4.57(1.59)

이 표에서 보면, 두 문화성향 집단의 자기 주의 경향(SES)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t(54) < 1$. 그러나 타인 주의 경향(SEO)은 집단중심성향자(6.07)가 개인중심성향자(5.46)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54) = 2.03, p < .05$. SEO의 이런 차이는 타인 고려 경향(OC)의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t(54) = 2.75, p < .01$.

주의의 초점 : 통제 양식 선호 양상 문화차의 조절 요인

문화성향 집단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가 문화성향에 따른 통제 양식 선호 양상의 차이를 조절한다면, ① 문화성향에 따라 1차 · 2차 통제 양식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또한 ② 문화성향에 따라 주의의 초점이 달라지면, 동시에 ③ 주의의 초점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문화성향이 통제 양식 선호도에 미치는 분화적 영향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Baron & Kenny, 1986; Sedikides et al., 2003). 앞의 분석에서는 ①과 ②의 조건이 대체로 충족되었다. 여기에서는 ③의 조건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SES와 SEO 및 타인 고려 정도(OC)를 공변인(covariate)로 하여 문화성향 × 통제 양식의 설계의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성향 × 통제양식의 공변량분석 결과(F)

	문화성향 (A)	통제양식 (B)	상호작용 (AB)
원래의 이원변량분석	.26	25.60***	4.46*
: SES 공변인	.29	1.51	4.48*
공변량 분석 : SEO 공변인	.87	2.48	2.09
: OC 공변인	.30	.17	1.79

* $p < .05$, *** $p < .001$

이 표는 원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각 공변량분석 결과를 비교해서 읽어 보아야 한다. 우선 자기 주의 경향(SES)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한 결과, 원래의 이원변량분석에서 검출되었던 통제 양식의 주효과는 사라졌지만, $F(1, 53) = 1.51, p > .22$, 문화성향 × 통제 양식의 상호작용효과는 같은 크기로 유지되고 있다, $F(1, 53) = 4.48, p < .05$. 이는 SES가 전반적으로 2차 통제 수준이 1차 통제 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낮추는 역할은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문화성향과의 상호작용에까지는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타인 주의 경향(SEO)과 타인 고려 경향(OC)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한 결과에서는 통제 양식의 주효과와, SEO : $F(1, 53) = 2.48, p > .12$; OC : $F(1, 53) = .17, p > .68$, 문화성향 × 통제 양식의 상호작용효과와, SEO : $F(1, 53) = 2.09, p > .15$; OC : $F(1, 53) = 1.79, p > .18$, 모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성향에 따라 두 통제 양식의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은 타인을 주의의 초점으로 삼는 경향 또는 타인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경향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 논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는 외적 환경을 통제의 대상으로 잡는 1차 통제의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의 대상으로 잡는 2차 통제의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에서도 대체로 반복되고 있다. 즉, 대학생들에게서도 1차 통제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고, 2차 통제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성향에 따라 통제 양식의 선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주의의 초점을 타인에게 두어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타인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두 문화성향 집단의 이러한 주의의 차이가 문화성향 집단간 통제 양식 선호 양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

한 결과는 문화성향에 따라 주의의 초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행위 원동력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문화성향에 따른 통제 대상의 차이가 유발된다는 본 연구의 추론이 대체로 타당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얻어지기도 하였다. 우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는 문화성향 선별 집단(전체 연구참가자의 37.6%) 전체의 1차 통제 수준(4.33)과 2차 통제 수준(4.35)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표 1 참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에서는 문화성향 선별 집단(전체 연구참가자의 40.6%) 전체의 2차 통제 수준(5.96)이 1차 통제 수준(5.20)보다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던 것이다(표 2 참조).¹¹⁾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번도 입학시험을 치른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임에 비해,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판문을 통과한 학생들이었다는 점에 이러한 결과의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서강대학교 학생들로, 해당 학년의 수학 능력 적성 고사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 2~3% 이내에 드는 좁은 범위내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입학 준비 과정의 치열함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이러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사소한 목전의 욕구들을 자제하는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전 범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고등학생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많이 신장된 학생들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2차 통제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게 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 그 원인

11)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집단주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기본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점을 던져 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다. 두 연령 집단의 이러한 전반적인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스러운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최상진(1995)은 어려운 역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삶의 과정에서 현실초월적 통제·심리방어적 통제·타인지향적 통제 등 2차 통제의 양식을 발달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보면서, 이러한 2차 통제가 한국인의 특징적인 통제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국인은 한국 문화에 적용하는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에서 1차 통제보다 2차 통제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은 문화화의 경험이 길어질수록 2차 통제의 수준이 1차 통제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고등학생은 2학년생들(16세 경)이고, 대학생은 대체로 2~3학년생들(19~20세 경)이었으므로, 후자의 한국 문화에의 적응 기간이 더 길고, 따라서 2차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 더 깊게 문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결과는 연구 2에서 자기 주의 경향(SES)이 문화성향×통제 양식 선호의 공변인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5 참조). 이는 두 문화성향 집단의 1차·2차 통제 양식 선호의 분화 현상은 타인에게 초점을 두는 경향(SES와 OC)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뿐(표 5 참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경향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Sheldon(1996)은 SES와 SEO 사이에 $r(304) = .09(p > .05)$ 의 낮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여(p. 624, 표 2) 이 두 차원이 서로 독립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¹²⁾ 자기를 주의의 초점으로 삼는 경향과 타인을 주의의 초점으로 삼는 경향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극의 단일 차원이고, 그 지표는 후자에 의해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는 본 연구의 표 3과 표 4에서 드러나듯이, SES척도가 자기를 주의의 초점으로 삼는 경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도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2) 본 연구에서도 이 두 척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검출되고 있지 않다, $r(136) = .12, p > .15$.

통제력 지각과 정신건강의 문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에 비해 통제의 대상을 타인이나 외적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이 강하고,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집단중심성향자에 비해 통제의 대상을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이나 외적 환경에서 찾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통제력 지각에 대한 문화 비교 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유형에 따라 통제력의 근원과 그 방향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Morling 등(2002)은 일본인과 미국인에게 자기들의 생애에서 외적 상황 조건에 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사건과 스스로가 외적 상황 조건을 변화시켰던 사건을 기억하여 열거해 보도록 한 결과, 일본인은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사건을 상황을 변화시켰던 사건보다 훨씬 많이 기억한 반면, 미국인은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사건보다 상황을 변화시켰던 사건을 훨씬 많이 기억함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국인들은 일본인과는 달리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사건을 경험할 때, 매우 어색하고 불안하며 무력함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집단주의자)들은 내적인 개인적 특성이나 조건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높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매우 일상적인 반면, 미국인(개인주의자)들은 외부 상황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높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더욱 일상적인 삶의 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두 문화 집단의 반응 경향은 각각 본 연구의 집단중심성향자 및 개인중심성향자의 반응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자들에게 통제는 내부지향적이지만, 개인주의자들에게 통제는 외부지향적임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통제력 지각의 핵심은 스스로의 자율성에서 연유하는 자유선택의 여부에 있게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선택이 통제력 지각의 핵심으로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들에게 “글짜 맞추기 과제”를 자유선택하거나 어머니가 지정해 주고 수행하게 했을 때, 미국의 아동들은 자유선택 조건의 수행율이 어머니 지정 조건의 수행률보다 높았으나, 중국과 일본의 아동들은 어머니 지정 조건의 수행율이 자유선택 조건보다 훨씬

션 높았다(Iyengar & Lepper, 1999)는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 결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기부터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도 개인적 통제력을 저해하는 존재로 받아들여, 자유선택이 통제력 지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타인(어머니)이 결코 개인의 통제력을 저해하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타인과의 연합형성은 2차 통제를 증진시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어머니와의 연합형성이 아동의 자기통제를 증진시키고, 과제에의 몰입을 유도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정영숙, 1994, 1995, 1996)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통제력의 근원을 타인이나 외적 조건과 분리된 개인에게서 찾으므로, 자기의 통제력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Nisbett, 2003). 이들은 도박이나 주사위 던지기 또는 복권당첨과 같은 순전히 운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도 자신이 선택했다든지 하여 스스로가 관련되어 있으면, 자기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통제력 착각(illusion of control)의 경향이 강한 것이다(Crocker, 1982; Langer, 1975; Langer & Roth, 1975; Taylor & Brown, 1988). 또한 이들은 비슷한 타인들보다 자기 자신이 정적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 사건은 더 적게 경험할 것이라고 믿거나, 자기의 미래를 타인의 미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의 경향도 강하다(Brown, 1986; Chang & Asakawa, 2003; Taylor & Brown, 1988; Weinstein, 1980).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은 정신건강의 지표이며(Nisbett, 2003; Taylor & Brown, 1988, 1944a, b),¹³⁾ 정적 착각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

감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Brown & Taylor, 1986; Myers & Diener, 1995; Nisbett, 2003; Taylor & Brown, 1988, 1994a, b)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Nisbett(2003)은 “(개인주의자인) 서구인들과 (집단주의자인) 동양인들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p. 82)면서,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사를 파악하는 “동양인들이 세계를 광각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반면,” 행위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세상사를 파악하는 “서양인들은 시야 협착(tunnel vision)에 빠지게 된다”(p. 89)고 주장한다. 그(Nisbett, 2003)는 더 나아가서 “동양인들(집단주의자)이 서양인들(개인주의자)보다 환경 세계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자가 후자보다 사상(事象)들 사이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p. 95)고 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단주의자들의 특징적인 통제 양식인 자기 통제(2차 통제) 양식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적응적인 가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통제력 착각이나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경향은 통제력의 근거를 개인 내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본인들은 캐나다인들과는 달리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경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Chang & Asakawa, 2003; Heine & Lehman, 1995). 따라서 정적 착각에 의한 통제력 과대 지각이 문화적인 요구로 작용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적응 수준을 높여,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에도 잘 대처하게 하고 또 행복감을 유발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정적 착각이 적응 수준이나 자연 재해에의 대처 및 행복감의 증진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역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itayama, Markus, & Kurokawa, 1994; Kitayama, Palm, Masuda, & Carroll, 1998; Nisbett, 2003). 이들은 오히려 외적 환경이나 내집단에의 조화로운 적응에서 행복의 원인을 찾으며(Nisbett,

관점에서 보면, 통제력의 근거를 개인 내에 두고 있고, 이것이 정신건강의 조건이라고 본다는 점은 모두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정신 건강의 기초라는 고전적 입장(Jahoda, 1958; Jourard & Landsman, 1980)이 견지되어 왔으나, Taylor와 Brown(1988)이 정적 착각은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 특징이므로 정신 건강의 촉진제가 된다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고전적 입장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Taylor와 Brown(1988)의 입장에 대해 Shedler, Mayman과 Manis(1993)가 고전적 입장에서 반박을 하고, 이어서 Colvin과 Block(1994; Block & Colvin, 1994)이 이에 가세하여 Taylor와 Brown(1994a, b)과 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 서든, 서구의

2003; Sastry & Ross, 1998), 바로 이러한 자기 억제와 통제(2차 통제)는 자기 개선(self-improvement)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작용하여(Heine & Lehman, 1995;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7; 조금호, 2003) 집단주의자들이 자기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단일 문화 내의 문화차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 문화 집단 내의 성원들의 문화성향에 따라 통제 양식의 선호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므로써, 사회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는 문화간 비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문화 내적 비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Choi et al., 2001; Hong et al., 1997, 2000; Kagitcibasi, 1997; Kurman, 2001; Mitchell & Silver, 1990; Sedikides et al., 2003; Smith, 1995; Suh, 2002; Trafimow et al., 1991; Triandis, 1994b, 1995; Triandis et al., 1993; 조금호, 2001, 2002; 조금호·김소연, 1998; 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명정완, 2001; 조금호 등, 2002)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일 문화 내의 문화차 연구 방법은 문화간 비교 연구가 가지는 “문화변용(acculturation), 문화 특수적인 개념(예: 초인지적 신념, metacognitive beliefs), 또는 문화 특수적인 반응 편향(예: 척도 해석)의 영향 등에 기인하는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진전(compelling steps)”(Sedikides et al., 2003, p. 70)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차 연구로서, 이것이 문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 현상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Kurman(2001), Sedikides 등(2003), Suh(2002) 등은 문화간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단일 문화 내 개인차 연구 결과와 문화간 비교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비교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통제 양식 선호 양상은 각각 기존 연구들(Bond & Hwang, 1986; Chang et al., 1997; Cheung, 1986; Liu, 1986; Morling et al., 2002; Weisz et al., 1984; Yang, 1986)에서 밝혀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집단의 통제 양식 선호 양상과 일치하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의 문화 연구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물론 문화간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본 연구에서와 같은 문화성향의 개인차 연구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개인 간의 차이가 그대로 집단간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한 문화 집단 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문화성향자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Bond & Smith, 1996; Schwartz, 1994; Triandis, 1994a, b, 1995; Triandis & Gelfand, 1998), 한 문화 집단 내의 문화성향의 개인차는 더 순수한 문화 차이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은 한 문화 내의 개인차 연구의 문화 연구로서의 가치를 거듭 드러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차 연구인 이러한 방법의 효율성이 객관적으로 폭넓게 입증되기 위해서는 문화 집단간 비교 연구와 함께 문화차를 연구하는 다른 문화 내적 비교 연구(예: 우리 문화 내의 세대차·지역차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차·지역차 연구 방법도 역시 유사실험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의 일종으로, 이보다는 문화에 대한 엄밀한 실험적 연구(예: 점화 효과를 원용한 연구)에서 그 결과가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화의 방법은 문화가 갖는 인과적 역할을 명백히 하여, 문화간 비교 연구의 결과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문화 연구 방법들을 능가하는 장점을 갖는 문화 연구의 새로운 도구”(Hong et al., 2000, p. 717)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 (2001).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분배규범의 선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1-16.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수인 (1996)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1차-2차 통제

- 양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의철 (1997). 한국 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청소년 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의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편.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 63-79). 서울: 한국심리학회.
- 이숙희 (2003).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대인신포 및 1차-2차 통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 217-265.
- 장성수, 이현남(1989).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결정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29-145.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정영숙 (1995). 두 유형의 사회적 기대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85-97.
- 정영숙 (1996).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과제수행 열심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159-170.
- 조금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금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6(2), 1-43.
- 조금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금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금호 (2001). 문화성향과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 편. 2001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65-273). 서울: 한국심리학회.
- 조금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금호, 김소연 (1998). 겸양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금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금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15-34.
- 조금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최상진 (1995). 한국인의 통제 유형.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535-543). 서울: 성원사.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규석, 오점조 (1993). 아동의 교류 양상에 대한 분석: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 and applic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J., & Colvin, C. R. (1994). Positive illusions and well-being revisited : Separating fiction from fact. *Psychological Bulletin*, 116, 28.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213-266).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1.
- Brislin, R. W. (1986). The wording and translation of research instruments. In W. J. Lonner & J. W. Berry (Eds.),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pp. 137-164). Beverly Hills, CA : Sage.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 of peer plea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own, J. D., & Taylor, S. E. (1986). Affect and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Evidence for mode-activated self-schemat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36-452.
- Chang, E. C., & Asakawa, K. (2003). Cultural variations on optimistic and pessimistic bias for self versus a sibling : Is there evidence for self-enhancement in the West and for self-criticism in the East when the referent group is specifi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69-581.
- Chang, W. C., Chua, W. L., & Toh, Y. (1997).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Asian context.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95-117). Singapore : Wiley.
- Chen, C., Lee, S. Y., & Stevenson, H. W. (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 170-175.
- Cheung, F. M. C. (1986). Psychopathology among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171-212).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1).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levance : Inclusion versus exclusion*.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6-59.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s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rocker, J. (1982). Biased question in judgement of covariation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214-220.
-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 Sage.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 McGraw-Hill.
- Greenfield, P. M. (1997). Culture as processes : Empirical method for cultural psychology. In J. W. Berry, Y. 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1, pp. 301-346). Boston, MA : Allyn & Bacon.
- Gudykunst, W. B. (Ed.), (1993). *Communica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 :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03-918.
- Heine, S. J., Takata, T., & Lehman, D. R. (2000). Beyond self-presentation : Evidence for self-criticism among Japa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1-78.
- Hong, Y. Y., Chiu, C. Y., & Kung, T. M. (1997). Bringing culture out in front : Effects of cultural meaning system activation on social cognition.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135-146). Singapore : Wiley.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Iyengar, S. S., & Lepper, M. R. (1999). Rethinking the value of choice : A cultural perspective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349-366.
- Jahoda, M.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 Basic Books.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79-94).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Jourard, S. M., & Landsman, T. (1980). *Healthy personality :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tic psychology* (4th ed.). New York : Macmillan.
- Kagitcibasi, C.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 A view from the other side*. Hillsdale, NJ : Erlbaum.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 1-49). Boston, MA : Allyn & Bacon.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247-259). Singapore : Wiley.
- Kitayama, S., Markus, H. R., & Kurokawa, M. (1994). *Cultural views of self and emotional experience : Does the nature of good feelings depend on culture?* Unpublished manuscript,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 Self-

- 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itayama, S., Palm, R., Masuda, T., & Carroll, J. (1998).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 Coping with earthquake ri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manuscript,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 Kuhn, M. H. & McPartland, T. S. (195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elf-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68-76.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1705-1716.
- Langer, E. 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anger, E. J., & Roth, J. (1975). Heads I win, tails it's chance : The illusion of control as a function of the sequence of outcomes in a purely chance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951-955.
- Liu, I. M. (1986). Chinese cognition.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73-105).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 Wadsworth.
- McArthur, L. Z., & Baron, R. M. (1983). Toward an ecological theory of soci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90, 215-247.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G. (1986). Early cross-cultural commonalities in social expla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14-520.
- Mitchel, T. R., & Silver, W. S. (1990). Individual and group goals when workers are interdependent : Effects on task strategie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85-193.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 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323.
- Morris, M. W., Nisbett, R. E., & Peng, K. (1995). Causal attribution across domains and cultures. In D. Sperber, D. Premack, & A. J. Premack (Eds.), *Causal understandings in cognition and culture* (pp. 577-614). Oxford, England :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s*, 6, 10-19.
- Newman, P. R., & Newman, B. M. (1976). Early adolescence and its conflict : Group identity vs. alienation. *Adolescence*, 10, 127-136.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New York : Free Press.
- Nisbett, R. E., & Cohen, D. (1996). *Culture of honor :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 : Westview.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 Holistic v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Peng, K., Nisbett, R. E., & Wong, N. Y. C. (1997). Validity problems comparing values across cultures and possible solutions. *Psychological Methods*, 2, 329-344.
- Peterson, D. R. (1961). Behavior problems of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 205-209.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 Whole No. 609).
- Rotter, J. B. (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36-67.
- Sastry, J., & Ross, C. E. (1998). Asian ethnicity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 101-120.
- Schwartz, S. H. (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85-119). Thousand Oaks, CA : Sage,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CA : Freeman. (윤진 · 조금호 역. 무기력의 심리. 서울 : 탐구당, 1983.)
- Shedler, J., Mayman, M., & Manis, M. (1993). The illusion of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8, 1117-1131.
- Sheldon, K. M. (1996). The Social Awareness Inventory :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620-634.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B. (1995).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Looking to the fu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588-590.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 (1994a). Positive illusion and well-being revisited :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21-27.
- Taylor, S. E., & Brown, J. D. (1994b).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Taylor, S. E., & Fiske, S. T. (1975). Point of view and perceptions of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439-445.
- Taylor, S. E., & Fiske, S. T. (1978). Salience, attention, and attribution : Top of the head phenomena.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1, pp. 249-288). New York : Academic Press.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2003). *Social psychology* (11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Hall.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 G.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self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NB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a).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 McGraw-Hill.
- Triandis, H. C. (1994b).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41-51). Thousand Oaks, CA : Sage.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P., Touzard, H., & Zale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Van de Vijver, F. J. R., & Leung, K. (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of comparative research. In J. W. Berry, Y. 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1, pp. 257-300). Boston, MA : Allyn & Bacon.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Yang, K. S. (1986). Chinese personality and its chang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pp. 106-170).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 Yang, K. S. (2000).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41-263.
- Zebrowitz, L. A. (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Cultural Dispositions and the Styles of Control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Rothbaum, Weisz, & Snyder, 1982), there are at least two types of control: the primary control and the secondary control. In primary control, individuals enhance their rewards by influencing existing realities. In secondary control, individuals enhance their rewards by accommodating to existing realities and maximizing satisfaction or goodness of fit with things as they are. It was found that primary control is heavily emphasized and highly valued in individualistic societies such as America, but in collectivist societies such as Japan, by contrast, primary control has traditionally been less highly valued and less often anticipated, and secondary control has assumed a more central role in everyday life. To illustrate this cross-cultural difference, the author contrasted idiocentrics and allocentrics of Korean high-school students (Study 1) and college students (Study 2) in their preference of the two types of control. As anticipated, idiocentrics preferred the primary type of control to the secondary, but allocentrics preferred the secondary type of control to the primary. Also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the attentional focus (idiocentrics attend to self more than to the situations, but allocentrics attend to the situations more than to self) moderated this cultural difference of the styles of contro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control betwee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 socie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Cultural Disposition, Idiocentric, Allocentric, Primary Control, Secondary Control

원고접수 : 2003년 6월 22일

심사통과 : 2003년 7월 25일